

주가	환율	금리
-13.66	보합	+0.03
1,411.47 (코스피지수)	930.80원 (원/달러)	4.80%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12.93	(-2.85)
다우(27일)	12,121.71	(-158.46)
나스닥(27일)	2,405.92	(-54.34)
닛케이	15,855.26	(-30.12)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23엔	(+0.10)
유로 달러 환율	1.3120달러	(+0.28)
3년만기 회사채	5.14%	(+0.03)
블룸리	4.46%	(보합)

AI피해 축산농가 세정지원

광주국세청 법인세 납부 연장·징수유예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권준기)은 지난 22일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와 관련, 피해를 입은 육가공업체와 축산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청은 피해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소득세 중간예납 등)의 경우에도 6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줄기로 했다. 신고·신청절차는 피해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光銀 휴일에도 문 열까

고객편의 제공·상무점 운영 검토

광주은행이 휴일에도 영업을 하는 휴일점포 운영을 검토중이다. 2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최근 일부에서 금융서비스 편의를 위해 토·일요일 등 휴일에도 영업을 하는 점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점을 휴일점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휴일점포가 운영된다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이다. 광주은행의 한 관계자는 “하지만 휴일점포의 경우 주 5일제 근무제에서 인력배치가 쉽지않고 근무조건, 급여, 노조와의 협의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실제 운영 여부는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중企대출도 수도권 65% 편중

주택담보대출 규제 여파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기대출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악화는 물론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발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지난해보다 3.5배 증가한 37조원에 달하는 등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중기대

광주·전남은 3.5%...우수中企 발굴 걸림돌 금융권, 기술력보다 부동산 담보위주 지원

출이 크게 늘었지만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총액 가운데 비수도권 대출 비중은 2001년 전국대비 43.8%에서 올해 9월에는 41%까지 줄어들었다. 중기대출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중기대출 비중(전국대비)도 2001년 10월 6.9%이던 것이 2002년 9월 6.6%, 2003년 9월 6.3%, 2004년 9월 5.8%, 2005년 9월 5.8%, 올해 9월 5.5%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중기대출 총액은 2001년 10월 10조5천598억원에서 올해 9월 15조2천932억원으로 4조4천334억원(40.8%)이나 늘었지만 전국대비 점유율은 오히려 1.4%포인트 떨어졌다. 중기대출 전담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에 있어서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광주·전남지역 비중이 턱없이 낮으며 점유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대출은 36조4천536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65.2%를 차지한 반면 비수도권 비중은 34.7%, 광주·전남지역 비중은 3.5%로 집계됐다. 2004년 이후 3년동안 수도권 비중은 63.5%→64.5%→65.2%로 늘어난

반면 광주·전남지역은 3.8%→3.6%→3.5%로 줄어 들었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원인은 은행들이 부동산 등 담보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위주의 안전대출을 하면서 기술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산이 없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금융혜택을 못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 첨단산단에서 광산업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첨단 중소기업에게는 초기 자금이 회사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데 은행들이 아직도 담보를 기준으로 대출해 주지 못하는 지역 중소기업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술력을 담보로 한 중기대출을 늘리는 한편 지역별 대출 할당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강경숙 토항토 대표

“친환경 황토소재 산업 활용도 높일 것”

올 매출 10억·수출 추진 혁신형 중기로 자리매김

“황토에 참숯기능을 첨가한 ‘토항토(土抗土)’는 각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활용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일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이 주는 ‘11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상’을 수상한 토항토(광산구 안창동·제용이름과 같음) 강경숙(38) 대표는 “특히 주택 내외벽 마감재 연구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황토는 성인병 예방, 독소제거, 흡착력, 정화작용에 뛰어나며 참숯은 정수와 공기정화기능, 탈취기능,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출, 습도조절기능 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대표는 “이같은 기능에 착안, 토항토 원료소재를 개발해 2005년 특허 등록했다. 토항토는 현재 황토찜질기, 찜질방, 내외벽 마감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 대표는 “최근 전국적인 웰빙바람과 함께 노폐물 배설, 혈액순환 촉진 등에 황토의 효과가 검증되면서 찜질방업체나 건설업체 등에서 ‘토항



‘11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28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김민호 토항토 부사장, 강경숙 토항토 대표, 장순호 광주·전남중기청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토’ 주문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매출은 지난해 3억원에 이어 올해는 10억원 이상도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토항토는 특허·실용신안 등 3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했으며, 10여건을 출원중이며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웰빙과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유리질 타일’ 개발과제를 완료했고 ‘원적외선 방사 바이오 세라믹블 찜질기’ 개발을 진행 중이다. 강 대표는 “내년에는 말레이시아·인도·일본 등에 수출가능성을 타진, 해외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문화·건강·환경분야의 대표주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삼성 홈플러스 주월점 재추진

市에 교통영향평가 제출

삼성홈플러스가 교통영향평가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광주 주월점 신축을 다시 추진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삼성테스코(주)가 광주시 남구 주월동 백운고갯도 로 인근 1만3천645㎡ 부지에 연면적 5만 3천843㎡, 7층 규모의 삼성홈플러스 광주 주월점 신축을 위해 지난 21일 남구청을 경유해 시 교통기획과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삼성홈플러스의 주월점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 제출은 지난 2000년

250억원에 부지를 사들인 뒤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이며 이중 3차례는 부결됐고, 1차례는 삼성테스코측이 자진 철회했다. 회사측은 주월점 신축시 건물이 들어설 설안에 위치한 사유지 1천907㎡를 매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삼성홈플러스 주월점 신축이 추진될 때 마다 주변 무등시장 등 재래시장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했으며, 박광태 광주시장은 5·31지방선거 전 무등시장 등 재래시장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주월점 신축 불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장애인 기업·창업활동 적극 돕겠다”

박영근 장애인경제인협 광주·전남 초대지회장



“광주·전남지역 4만5천여 장애인들의 왕성한 기업·창업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8일 취임한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박영근(56·광림토건 회장) 초대 광주·전남지회장은 “먼저 창업보육센터 조기 건립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지회 창립은 장애인들이 국민경제의 주체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회장은 3년 임기동안 ▲장애인 우수상품전시 및 투자박람회 개

최 ▲해외시장 개척지원 ▲창업경진대회 ▲컨설팅 지원 ▲자금 및 판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올 5월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가 설립됐으며, 광주·전남지회는 28일 KT전남본부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사진 = /A명기자 mjna@

조이트렉빌

시골서서 32-2862-1111
449-278-1111
119-152-1111
119-421-1111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공공청사기초

공공청사기초
공공청사기초
공공청사기초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
가을방학 특선 일보은화합일